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12장 다같이

1.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뭇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2. 뭇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 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3.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준령 넘느라 온 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4.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 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 도 가족 중**성경봉독 누가복음 2장 1-14절 인도자****설 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도자****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이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2.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우리의 영혼도 보호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1-14

김재명 목사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초’를 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현재 평안하십니까? 평화는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충만한 행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갈등상태와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다 땅 한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천군천사들이 그 아이 덕분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과 땅 모두 ‘평화 천지’가 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시간적 배경을 기술합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제시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로마에서는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평화의 시대’, ‘황금의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는 흑암의 시대, 눈물과 고통의 시대였을 뿐입니다. 누가는 로마 황실에 앉아 있는 아구스도가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주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서, 그분으로 인해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영원한 평화가 깃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공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리아 총독 구레뇨, 유대 왕국 헤롯 대왕이 연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자연과 사회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예언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피조물 전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섭리에 이바지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굿간(외양간, 동굴)이었고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예수는 왕궁의 화려한 산실, 고관대작의 고대광실, 부자의 철옹성 같은 담장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첫 시작부터,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다. 우리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 평강 없는 자들, 우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목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대명사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입니다. 복음이 한정된 계층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었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자들도 그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을 바로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전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14절).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②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인간 사이의 모든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③ 예수님을 통해 영혼육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평화 즉 살롬이 구현되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는 완벽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구유에 좌정하여 주옵소서.